

## 고용 특성 및 재산상태와 결혼/이혼으로의 이행

이연주, 하와이대학교 사회학과

### 요약

경제의 세계화와 더불어 노동시장 구조의 양극화가 진행되어왔고 그와 함께 결혼 및 이혼 행태에도 인구의 양극화가 관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대학졸업자와 그 이하 학력집단 사이에 결혼이행의 양극화가 관찰되었고 한국의 경우도 2000년대 이후 같은 현상이 보고되어왔다. 노동패널자료는 다른 여타의 가족에 관한 실태 조사와 달리 일자리 특성과 재산에 관한 정보가 풍부하고 결혼상태의 이행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가족관련행동과 사회경제적 지위변화와의 관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아직 예비적 단계이며 앞으로 더 정밀하게 자료를 탐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재미있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결혼적령기에 있는 응답자 본인이나 그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은 남자응답자의 경우 결혼을 촉진하지만 여자응답자의 경우 오히려 결혼이행을 억제 혹은 연기시키는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출가외인 가설”을 제시하여 성별 차이를 해석하였는데, 부모의 성인 자녀에 대한 광범한 영향력을 시사하는 것 같다. 아들의 경우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 이양되는 것 같고, 딸의 경우 부모의 자원의 전수라는 측면 외에 삶의 질에 대한 비교적 높은 기대수준을 심어주어서 결혼이라는 불확실한 미래로 진입하는 것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 1. 서론 및 문제 제기

결혼과 이혼으로의 이행은 다양한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만혼 및 비혼은 초저출산력(very low fertility)으로 이어지고 따라서 인구 고령화를 촉진한다 (Jones 2007). 자녀출산 연령대에서 일어나는 결혼파탄도 초저출산률 현상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거시 인구학적 함의 뿐 아니라, 결혼 및 이혼 확률에 있어서 사회 집단간의 차이는 경제적 불평등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문헌에 의하면 서구사회에서는 지난 수십년 동안 결혼과 이혼의 양극화가 계속되어왔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집단은 대학중퇴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혼인의 확률이 높은 반면 결혼 후 이혼을 할 확률은 현저히 낮다 (Goldstein and Kenny 200; Sayer et al. 2011). 미국의 경우 이런 학력간 차이는 이전에는 남성에게서만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남-녀 두 성별

집단에서 대체로 공통적이다 (Sweeney 2002). 한국에서는 여자보다는 남자의 학력별 결혼상태 차이가 현저하다 (Lee 2006; Park and Raymo 2013). 또한, 부부가 소유한 재산의 크기는 자녀 수와 함께 이혼의 확률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재산상태가 결혼이행에도 영향을 준다. 결혼적령기 집단에서 소유한 재산이 많을수록 결혼으로 이행할 확률이 높다 (Schneider 2011).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이나 자녀는 이혼 후 그 효용가치가 하락하므로 부부는 가급적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Weiss and Willis 1997).

이와 같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결혼으로의 이행 확률과 결혼 지속 확률이 높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유배우라는 결혼 상태가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다. 특히 남자의 경우 기혼자의 평균 소득이 미혼자나 이혼/사별 집단의 평균 소득에 비해 비현저히 높다. 물론 남성의 경우 결혼 수입간 관계는 결혼효과(marriage effect) 때문인지 결혼선별(marriage selection)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아마도 두 가지 역학관계가 다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 뿐만 아니라 소비에 있어서도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부부 공동생활이 두 성인이 각자 가구를 유지하는 것보다 경제적일 것이다. 물질적 측면뿐 아니라 시간 사용에 있어서도 유배우자들은 수입을 위한 일, 가사, 자녀양육 등 다양한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분담 내지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정의 경제적 지위를 고려한 후에도 양부모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한부모가정 자녀들 보다 계층이동에서 상향할 확률이 높고 하향할 확률이 낮다 (Western 2006). 종합하면,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족형태 사이에는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작용하여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보이는데, 경제의 세계화와 더불어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의 양극화라는 추세와 맞물려 미국사회의 경우 1990년대부터 결혼의 양극화가 진행되어왔다. 한국의 경우 평균 초혼연령이 유사 이래로 최고에 달하고, 40대까지 미혼으로 남아 있는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만혼 혹은 미혼의 추이가, 심화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보수주의 정당이 지배하는 몇몇 정부에서는 사회계층간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결혼 장려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결혼한 배우자들은 협력 혹은 분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서 미혼자들에 비해 보다 용이하게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이룰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졌다. 물론 미국에서는 이혼자뿐 아니라 많은 비혼자(never married)가 한 부모 가정을 이루고 있으므로 양부모 가정과 비교하여 자원의 열세가 상대적으로 더욱 심각할 것으로 추정되기는 한다. 한국의 경우 무자녀 독신자의 생활환경은 자녀를 양육하는 기혼자 가정에 비하여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독신생활은 사회적 연결망을 감소시켜서 사회적 지지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결혼과 개인의 복지(well-being)의 상관관계에 관한 문헌은 결혼선별 (marriage selection) 과 결혼보호 (marriage protection) 두 개의 상반된 연구 가설을 바탕으로 하고있다: 전자는 실제로 혹은 잠재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우월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결혼을 한다는 가설이고 후자는 같은 조건으로 시작하였으나 결혼을 함으로써 보다 우월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도달한다는 가설이다.

이러한 가설들을 검증하려면, 결혼이나 이혼 직전의 고용/재산 특성에 초점을 두고 한 방향의 인과관계를 가정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심층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즉, 고용/재산 상태가 결혼/이혼으로의 이행에 주는 영향뿐만 아니라 역 방향의 인과관계도 파악하여 누적적으로 어떻게 그 상관관계가 진행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국노동패널은 18 차에 걸친 조사자료로 그러한 장기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지만, 본 연구는 우선 일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살펴본다. 첫째, 기존 연구의 예측을 검증한다. 즉, 한 시점에서의 고용/재산 상태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음 시점에서의 결혼/이혼 이행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다. 자료가 허락하는 한 응답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도 고려한다. 응답자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는 부모의 직접적인 지원 가능성이라는 측면뿐 아니라 응답자들의 삶의 질에 대한 기대수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여서 간접적으로 결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즉, 기대수준과 현실 상황의 차이가 결혼/이혼 이행을 저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경제적 자원과 결혼 사이의 인과관계에서 성별, 학력별 차이를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결혼/이혼이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파악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II. 자료 및 연구방법

### 1. 결혼이행 분석

결혼이행 분석을 위한 표본은 노동패널 18 차에 걸쳐 조사된 모든 응답자 중에서 18 세 이상 미혼자들이다. 18 세 미만에 패널조사에 진입한 응답자는 18 세가 되는 차수(wave)부터 분석에 포함하였다. 표본의 대표성을 위하여 조사진입당시 여자 21 세 남자 23 세 이하 응답자로 국한하였다. 여자 22 세 남자 24 에 이상 연령에서는 이미 그 코호트의 일부가 결혼하였으므로 그 코호트를 대표하는 집단이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1 차에서 23 세이던 남자는 18 차 41 세가 될 때까지 관찰되었고 1 차 조사에서 18 세이던 코호트는 36 세까지 분석에 포함되었다. 이와같이 전체 표본에는 1 차에서 23 세이던 76 년도 출생 코호트부터 17 차에서 18 세이던 1996 년도 출생 코호트까지 포함되었다. 학생의 결혼빈도가 매우 낮은 관계로 재학중인 학생은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결혼 당시 독립변수에 관한 정보는, 인과관계 분석을 위하여 결혼을 이행한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혹은 그 전 차수) 조사에서 자료를 가져왔다. 물론, 결혼이행시기는 결혼이 조사된 처음 차수가 아니라 그 조사에서 응답한 결혼이행 연도이고, 따라서 그에 맞는 이전 조사 차수(결혼이행연도 전년도 조사)를 찾아서 사용하였다. 해당하는 패널차수 조사에 응답자가 참가하지 않은 경우 그 전 조사중 가장 최근에 참가한 차수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도나 연령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그 이전에 조사된 차수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discrete-time event history analysis 를 사용하였다. 응답자-차수를 분석단위로 하여, 로짓모형을 사용하였다. 표본수는 남자 12,398 여자 9,733 차수이다. 또한, 개인을 상위수준으로, 연령을 하위수준으로 하여 복수수준분석(multi-level analysis)기법을 사용하였다. 초혼이행은 응답자별로 오직 한번만 이행이 이루어 지므로 단일수준 분석과 그 결과는 별 차이가 없었다. 표 1 은 표본특성, 표 2 와 3 은 남성과 여성의 로짓결과를 보여준다. 로짓분석은 남녀 각각 4 개의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모델 1 은 교육수준별 단순 비교를 보여주고, 모델 2 는 교육수준, 연령, 가구구성(가구주와의 관계) 등의 인구학적 변수, 모델 3 은 일(직업)특성 변수, 모델 4 는 부모특성 및 재산상태 변수들을 포함한다. 모델 1 은 모델 2 아래 배치하여 같은 칼럼에 제시하였다.

## 2. 이혼이행 분석

이혼(혹은 별거)이행 분석도 결혼이행 분석과 기본적으로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이혼(혹은 별거)는 그 이행과 함께 패널조사에서 탈락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이행을 관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노동패널 1-5 차 조사 자료를 사용한 필자의 이전 연구에 의하면 두 배우자 중 오직 한 사람만 이혼이나 별거를 보고하고 나머지 배우자는 조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두 부부 모두가 모두 이혼이나 별거를 보고하는 경우 만큼이나 빈번하였다. 추정하면 두 배우자 모두 탈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혼 이전부터 수년 동안 조사에 참여하지 않다가 나중에 다시 합류한 경우도 있는데 중간에 이혼과 재혼을 경험한 경우 결혼상태 정보나 이혼년도 정보만으로 이혼 전 배우자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 아무튼, 조사로 부부의 탈락이 무작위적으로 분포되어 있지 않다면, 응답자의 보고만을 토대로 분석할 경우 해석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번 분석에서는 응답자 보고만 사용하였는데, 이혼 전 배우자의 확정이 쉽지 않은 관계로 이혼을 보고한 개인의 자료만 사용하였다. 그 결과 이혼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런 이유 등으로 본 연구의 이혼분석은 아주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혼분석을 위한 표본은, 표본집단의 동질성을 위하여 1 차 조사 당시 18 세 이상 38 세 미만 20 년 코호트로 국한하였다. 노동패널 18 차에 걸쳐 조사된 모든 응답자 중에서 이 코호트에 해당하는 기혼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결혼 초기에 이혼한 사람들이 누락되어 결혼집단의 대표성이 약해지는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미혼으로 조사에 진입하여 결혼한 응답자, 즉 결혼당시부터 관찰된 응답자를 우선으로 하였으나, 그 표본수가 작다는 점과 관찰되는 결혼기간이 짧다는 한계 때문에 1 차년도 응답자들의 경우 조사 이전 5 년 이내에 결혼한 사람들을 포함하였다. 결혼분석과 마찬가지로 조사에서 응답한 이혼연도의 1 년 전에 조사된 차수를 찾아서 독립변수 정보를 가져왔고 해당연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그 이전 차수 중 가장 최근 유배우 당시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결혼분석과 마찬가지로 discrete-time event history analysis 를 사용하였는데, 연령이 아니라 결혼지속기간을 시간단위로 하였다. 응답자-차수(즉 결혼지속기간)를 분석단위로 하여,

로짓모형을 사용하였다. 표본수는 남자 20,863 여자 21,561 차수이다 (표 4 참조). 표 4 는 표본특성을, 표 5 와 6 은 각각 남성과 여성의 로짓결과를 보여준다. 로짓분석 모델 1 은 교육수준을 포함한 인구학적 배경변수, 모델 2 는 일(직업)특성, 재산상태 및 가족생활 만족도 변수들을 포함한다.

### III. 결과

#### 1. 결혼이행의 요인들

먼저 표 1 의 표본 특성을 간단히 살펴보면, 약 1/3 의 사람-차수단위에서 직업이 없는 상태이다. 모든 응답자가 학교를 떠난 후 어느 정도 무직인 기간을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낮은 연령에도 불구하고 무직 비율이 남자 보다 약간 낮다. 이런 성별 차이는 거의 모두 상용고 비율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도 양성간 거의 동일하지만 초급대 비율이 여자가 조금 높고 대신 고등학교비율은 남자가 조금 높다. 다른 변수들도 양성간 차이가 거의 없다.

표 2 남성 로짓분석 결과, 모델 1 에 의하면 교육수준과 결혼은 뚜렷한 정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나중에 표 3 에서 보듯이 여자의 결과는 다르다. 남성의 경우 대학졸업자의 결혼확률이 고등학교졸업자보다 현저히 높다. 그러나 모델 2 에서 연령및 연령제곱을 통제하면 교육수준효과가 사라진다. 즉 각 연령마다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결혼확률에 차이가 없다. 추정하기로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20 대 초반 높은 결혼율을 보이지만 20 대 중반이후 대졸자가 만회하고 더 높은 결혼율에 도달하므로 연령별 결혼율은 평균적으로 차이가 없는 반면 모든 집단에서 결혼율이 높은 연령대에서 대졸자가 우위를 차지하므로 전체적 결혼율은 대졸자가 더 높다. 당연히, 연령이 매우 중요한 변수인데 20 대에 접어들며 결혼확률이 현저히 높아지다가 여자의 경우 20 대 후반부터 남자의 경우 30 대 초반부터 다시 내려간다. 또한 가구주일 경우 결혼율이 높다. 즉, 부모나 다른 성인가장으로부터 독립하여 가구를 구성한 경우 결혼할 확률이 더 높다.

모델 3 에서 취업특성을 통제하면 다시 교육수준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 효과는 취업자에 국한한다. 한편, 미취업의 결혼 억제효과는 대졸자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효하고 전문대이하에서는 전혀 유의미 하지 않다. 이런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는 같은 모델에서 취업자 특성을 통제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종사상지위 변수들 중 임시직-일용직-전일 근무자를 생략변수(omitted category)로 하였기 때문에 미취업효과는 그들과 비교한 것이다. 한편 상용고는 매우 유의미한 결혼촉진효과를 나타내고,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무자는 유의미한 결혼억제 효과를 나타낸다. 임시-일용직의 경우 전일제와 시간제사이에는 그 고용의 의미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영자-가족종사자의 결혼율은 유의미 하지 않은 매우 약한 정도로 높았는데, 여기서 제시하지 않은 예비분석에서 가족종사자들의 결혼율이 (임시직-일용직-전일 근무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즉, 남성 가족종사자의 경우, (여성과 달리, 표 3) 취업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종사자 표본수가 매우 작아서 통제변수가 많은 이 모델에서는 별도의 변수로 분리하지 않았다. 상용고와 별도로 정부부처나 국영기업등 공공분야 근무도 결혼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공공분야 근로자는 전체 표본 남성의 4%에 지나지 않는다.

모델 3 에 가족생활만족도도 포함시켰다. 이 변수는 수입, 여가생활, 주거환경, 가족관계 등 4 가지 만족도 문항을 종합한 것으로, 네 항목 모두에서 만족을 표시한 집단, 한 문항에서라도 불만족스럽다고 보고한 집단, 그리고 그 중간 정도의 만족도 등 세 범주로 나누었고, 무응답은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모델 4 에서 가족배경변수와 함께 도입할 수도 있었지만, 유의미 정도가 약해져서 모델 3 에서 미리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가장 높은 만족도를 표현한 집단이 그보다 낮은 만족도를 표현한 집단에 비하여 결혼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미혼자가 가족생활에 만족한다는 것은 많은 부분 부모와의 관계를 반영하므로, 높은 만족도는 부모나 형제자매의 높은 지지나 성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모델 4 에서 더 많은 가족변수를 살펴보았다. 자가소유의 주거형태가 결혼율을 높였다. 추가분석에서 자가소유와 가구주와의 관계변수간에 interaction 이 없었다. 즉 부모가 소유한 자가이거나 본인이 소유한 자가 모두 결혼율을 높인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응답자 결혼과 무관하게 나타났다. 자가 주거 및 부모 교육수준 변수의 도입으로 가족생활만족도의 효과가 내려갔다. 자가등 가족환경이 가족생활만족도를 일부 설명한다. 종합하면 본인이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이 결혼적령기에 있는 남성들의 초혼 진행을 촉진한다.

표 3 은 여성의 결혼진행요인들을 보여주는데, 많은 부분 남성과 비슷하면서도 중요한 차이도 나타난다. 먼저 모델 1, 남성과 달리 교육수준별 결혼율에 차이가 없다. 그러나 모델 2 에서 연령과 연령제곱을 통제하면 교육은 결혼과 부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렇게 결과만 놓고 보면 남성과 상이하지만, 실은 남성과 비슷한 과정이 있지 않나 추정된다. 즉, 10 대 후반부터 20 대 초반까지 고졸자의 결혼율이 높았다가, 20 대 중후반 결혼율이 높은 연령대에서 대졸자가 결혼율을 만회하지만 고졸자 결혼율을 (많이) 상회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전체표본에서는 교육수준간 차이가 없고 연령별 결혼율은 모든 연령대를 평균했을 때 대졸자가 낫다. 즉, 연령별 결혼율 유형은 남성과 대체로 비슷하다. 여성의 경우 가구주지위는 결혼과 관계가 없다. 즉 부모로부터의 독립생활이 결혼을 촉진하지 않는다.

모델 3 취업특성의 효과에 있어서도 남성과 공통점과 상이함이 공존한다. 먼저 모델 2 에서와 같이 (남성과 달리) 전문대 이상의 대학교육이 (연령별) 결혼율을 저하시키는 반면, (남성과 같이) 미취업은 결혼을 억제하는데 미취업의 결혼억제효과는 4 년제 대학 졸업자에게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전문대와 고등학교 졸업자는 미취업효과가 없다. 앞서말한대로 미취업은 임시직-일용직-전일 근무자와 비교한 것이다. 한편, 상용고와 공공부문 직업의 결혼촉진효과는 남성과 동일하지만, (남성과 달리) 임시-일용-시간제 취업은 임시-일용-전일 근무자와 차이가 없고, 별도의 분석에 의하면 (남성과 반대로) 가족종사자지위는 결혼 억제 효과를 나타낸다. 남성의 가족종사자 지위가 부모의 사업을 물려받을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뜻에서 취업효과가 있다면, 여성의 경우는 물려 받을 가능성이 적다는 의미이거나 아니면 가족적 자영업 물려 받는 것이

결혼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 것 같다. 아무튼 남녀 모두 가족종사자 표본수가 적어서 모델 3 과 같은 다변인분석에서는 통계적 유의미를 확인하기 어렵다.

가족생활만족도는 남자표본과 매우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중간정도의 만족도를 표현한 여성들의 결혼율이 아주 만족하거나 불만족인 집단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앞서말한대로 미혼자의 가족생활만족도가 부모나 형제로부터 받는 물질적 지원과 정서적 성원을 반영한다면 이런 지원은 결혼촉진과 억제 효과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우 그 두가지 효과가 상충하는 듯 한데, 중간만족집단에서는 억제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매우-만족 집단에서는 두 상반된 효과가 상쇄되는 것 같다. 출가외인이라는 가부장적 전통이 남아있다고 가정하면, 만족스러운 가정환경을 떠나 미지의 결혼생활을 선택하는데 주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같은 전통의 맥락에서, 남성의 경우 결혼이 부모 형제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고 현재 가족생활과의 연속성을 기대하는 것 같다.

같은 맥락에서 모델 4 에서 자가의 주거형태 (즉, 부모의 주택소유)는 여성의 결혼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 한편 상대적으로 높은 부모의 교육수준은 결혼억제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위에 말한 “출가외인 가설”이 여기에도 해당되는 것 같다.

종합하면, 적령기 남성의 경우 부모의 여유있는 경제적 여건이 중요한 결혼촉진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부모자원의 결혼억제효과와 촉진 효과가 상충하는 것 같다. 본인들 자신의 교육수준도 이와 비슷한 성별 차이점을 보여준다. 대학교육이 남성의 결혼을 증가시키지만 여성의 경우 무관하거나 억제한다. 한편 고용의 안정성은 남성뿐 아니라 여성의 결혼도 촉진한다. 본인의 취업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안정성은 여성의 경우에도 결혼시장에서의 높은 경쟁력을 의미한다.

## 2 이혼이행의 요인들

먼저 표 4 에 의하면 미혼집단에 비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현저하게 낮다. 표본응답자가 자녀출산의 연령대에 있으므로 여성의 생애 노동참여 유형인 M 자형의 가운데 낮은 지점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남성의 노동참여율은 미혼자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 문헌에 의하면 자녀출생과 더불어 여성의 취업률은 줄어들고 남성의 취업율과 근로시간은 증가한다고 한다. 그 외에는 표본특성에서 성별 차이는 별로 없다.

표 5 와 6 을 비교하면, 결혼이행의 경우보다 변수효과의 성별 차이가 작은 편이다. 우선 결혼당시 가족특성면에서 양 배우자가 같은 조건을 공유하고 있고, 또 유유상종의 결혼법칙 assortative mating)에 따라 배우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비슷하다면 이혼자의 특성이 비슷할 수 밖에 없다. 두 집단 모두에서, 대학교육은 통제변수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혼율을 감소하는 중요변수이다. 초혼연령은 U 자형의 효과를 나타낸다. 20 대 후반에서 가장 낮고 그 이전이나 이후에 높다.

모델 2 를 보면 현재 살고있는 주택의 가치 (자가이면 주택가격, 전세이면 전세보증금, 월세이면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가구의 총 재산은 양성 모두에서 결혼 안정성 효과를 가져오는데 여성의 경우 결혼생활만족도 (혹은 가족생활만족도)를 통제하면 그 효과가 상당히 감소한다. 남성의 경우 결혼만족도 통제 이후에도 강한 효과를 보여준다. 여성의 경우 재산이 만족도라는 경로를 통하여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준다. 가장 큰 성별 차이는 직업활동과 관련된 변수에서 나타난다. 앞 표에서 노동참여 비율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그 변수들의 결혼이행에 대한 효과도 성차이가 뚜렷하다. 오직 남성의 경우만 (근로자의 총수입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의) 취업상태 와 연간 총 근로수입이 결혼불안정성을 낮추는 반면, 45 시간 이상 주당 근로시간은 여성의 경우에만 이혼을 증가시킨다. 성별 역할분담에 대한 규범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결혼의 경우와 반대로 남성이 가구주일 경우 결혼안정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남편이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이혼률이 높다.

#### IV. 요약 및 결론

경제의 세계화와 더불어 노동시장 구조의 양극화가 진행되어왔고 그와 함께 결혼 및 이혼 행태에도 인구의 양극화가 관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90 년대부터 대학졸업자와 그 이하 학력집단 사이에 결혼이행의 양극화가 관찰되었고 한국의 경우도 2000 년대 이후 같은 현상이 보고되어왔다. 노동패널자료는 다른 여타의 가족에 관한 실태 조사와 달리 일자리 특성과 재산에 관한 정보가 풍부하고 결혼상태의 이행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가족관련행동과 사회경제적 지위변화와의 관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결혼이나 이혼의 경우 응답자의 참여가 들쭉날쭉한 경우 결혼상태 변화를 설명하거나 배우자를 확정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아직 예비적 단계이며 앞으로 더 정밀하게 자료를 탐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및 이혼 이행에 대한 몇가지 재미있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결혼적령기에 있는 응답자 본인이나 그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은 남자응답자의 경우 결혼을 촉진하지만 여자응답자의 경우 오히려 결혼이행을 억제 혹은 연기시키는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출가외인 가설"을 제시하여 성별 차이를 해석하였는데, 부모의 성인 자녀에 대한 광범한 영향력을 시사하는 것 같다. 아들의 경우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 전수되는 것 같고, 딸의 경우 부모의 자원은 자원의 전수(상속)이라는 측면 외에 삶의 질에 대한 비교적 높은 기대수준을 심어주어서 결혼이라는 불확실한 미래로 진입하는 것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 참고문헌

- Goldstein, Joshua R. and Catherine T. Kenney. 2001. "Marriage Delayed or Marriage Forgone? New Cohort Forecasts of First Marriage for U.S. Wom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6:506-519.
- Jones, Gavin W. 2007. "Delayed Marriage and Very Low Fertility in Pacific Asi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3: 453-78



- Lee, Yean-Ju 2006, "Risk factors in the rapidly rising incidence of divorce in Korea" *Asian Population Studies* 2(2): 113-132.
- Park, Hyunjoon and James M. Raymo. 2013. "Divorce in Korea: Trends and Educational Differential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5:110-26.
- Sayer, Liana C., Paula England, Paul D. Allison and Nicole Kangas. 2011. "She Left, He Left: How Employment and Satisfaction Affect Women's and Men's Decisions to Leave Marriag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6(6):1982-2018.
- Schneider, Daniel 2011. "Wealth and Marital Divid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7(2): 627-667
- Sweeney, Megan 2002. "Two decades of family change: The shifting economic foundations of marria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7-132-147
- Weiss, Yoram and Robert Willis. 1997. "Match Quality, New Information, and Marital Dissolution." *Journal of Labor Economics* 15(1): S293-S329.